오늘은 세돌의 실수…AI 한돌에 불계패

이세돌 9단, 2국서 122수만에 돌 거둬 "초반 실수 아쉽다"

내일 고향 신안서 마지막 대국 "승패 떠나 내 바둑 둘 것"

신안 출신 이세돌〈사진〉이 인공지능(AI)과 맞바둑에서 122수만에 돌을 거둬들였다.

이세돌은 이제 자신이 나고 자란 신안에서 21일 열리는 제3국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 대국에서는 다시 2점을 놓고 AI와 맞선다.

이세돌은 "마지막을 고향에서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안이다 보니 신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다. 서울에서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못 오실 것이다. 뜻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세돌은 19일 서울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NHN의 바둑 AI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기 제2국에서 '호선'(互先)으로 대결을 펼쳤으나 122수 만에 불계패했다.

전날 열린 1국 2점 바둑에서 승리한 이세돌은 이날 2국 맞바둑에서 흑을 잡고 양소목 포석을 펼치며 실리작전을 구사했다. 그러나 중반 초입 좌상귀 접전에서 저지른 미세한 실수가 치명상이 됐다. 이세돌의 작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잡은 한돌은 불과 40여수를 둔 시점에서 승률 그래프가 90% 가까이 육박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좌상귀 실수로 작은 손해를 입은 이세돌은 하변으로 손길을 돌렸으나 인공지능은 단 한 번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비세를 느낀 이세돌은 여기저기 상대 약점을 찔러보며 인공지능을 상대로 특유의 '흔들기'를 펼쳤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철벽 방어를 쉽사리 뚫지 못했다.

이세돌은 좌변과 우하귀에서 뻗어 나온 백돌을 갈라쳐 위협했으나 한돌은 가볍게 수습했고, 우변 백돌도 포위해 봤지만, 인공지능은 차분하게 삶을 확인했다. 이세돌은 승부사로서 더는 해 볼 곳이 없다고 판단하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돌을 거두고 말았다.

한돌은 전날 2점 바둑에서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며 자멸했지만, 호선 바둑에서는 이세돌을 완벽하게 압도했다. 현장 해설을 맡은 조인선 4단은 "이세돌 9단의 흑 31수가 첫 번째 실수였다. 한돌의 32수 이후 중계 화면에서 이세돌 9단이 계속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세돌 9단의 33수도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조 4단은 이어 "치명적인 패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연달아 실착이 나왔고, 그 이후로 기회가 없었다"고 총평했다. 그는 "내용상으로 크게 설명해 드릴 것은 없다. 이세돌 9단 입장에서 아쉬운 바둑이다. 인간 기사와의 대국에서 이렇게 빨리 패착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역시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돌은 지난 1월 국내 바둑랭킹 최상위 그룹인 박정환·신진서·신민준·이동훈·김지석 9단 등과도 호선으로 대결해 모두 승리했다. 이세돌은 대국 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며 "초반에 정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나와서 정말 아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대국은 진짜 마지막이기 때문에, 승패를 따지지 않고 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연합뉴스

광주전남기자협회장에 광주일보 최권일 부장

득표율 59.8%… 첫 직선 회장

광주·전남기자협회 제42대 회장에 광주일보 최권일(51·사진) 기자가 당선됐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19일 첫 직선제로 치러진 제42대 협회장 선거 모바일 투표에서 기호1번 최권일 후보가 59.8%(300표)의 득표율을 기록,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선거인 총 547명 가운데 501명(91.6%)이 투표에 참여했다.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최 당선인은 "첫 직선제 투표로 선출된 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크다"면서 "제 42대 기협은 '참여·화합·소통·혁신'을 슬로건으로 회원 547명이 모두 참여하고, 이 속에서 화합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배 기자들과 젊은 기자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취재 현장과 사내에서 서로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젊은 기자들이 '2030 위원회'를 통해 질 높은 교육과 연수를 통해 취재 현장에서 맘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광주일보 경제부·사회부·지역사회부 기자 등을 거쳐 현재 정치부 부장(정치팀장)을 맡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문체부 2차관 임명

정책기획위원장 조대엽

과기1차관 정병선·2차관 장석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5개의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인어'로 불린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정책기획위원장에는 현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조대엽(59)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의장을 발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정병선(54·행정고시 34회) 과기부 국립중앙과학관장, 2차관에 장석영(52·행시 33회)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차관급 4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교체되는 문미옥 과기부 1차관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어 이번 인선은 총선을 앞둔 정무직 차관급 인사로 풀이된다.

최윤희 신임 문체부 2차관은 서울 상명여고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3관왕,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2관왕인 최 신임 차관은 대한체육회 이사와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최 2차관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현장경험과 행정역량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며 "체육계 혁신과 관광·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등으로 임명 직전에 물러난 조대엽 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의 방향을 그리는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돼 주목된다. 다만 낙마한 인사를 재기용했다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신임 정책기획위원장은 경북 안동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냈다.

정병선 신임 과기부 1차관은 전북 동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장석영 과기부 신임 2차관은 대구 능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과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고흥·보성 섬 오지지역 '드론배달 시험운항'

전남도가 섬이나 산간오지에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시험에 들어갔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 운항 시험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고흥 도양읍 사무소에서 열어 드론배달점 30점을 확정하고, 시험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전남도는 2018년 '도로명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모델개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운항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흥과 보성 일원의 섬·오지지역 30곳을 드론배달점으로 선정했다. 드론배달점은 정기 여객선이 없거나, 물류배달을 위해 3~4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드론배달점 30곳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 5월까지 '드론 시험운항'을 추진한다.

우선 배달점 간 시험 운항을 통해 드론 항로를 개척하고 드론비행 시 전파장애 및 장애물 등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드론배달점 간 자율비행 테스트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드론배달 비행 항로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에는 국비 1억원을 들여 전남 도서벽지 가운데 수요를 추가 발굴해 드론 운항에 필요한 배달점을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도서지역 등 산간·오지지역에 '드론배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공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도민에게 우편, 응급구호물품 등 배송을 위해 '드론운항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드론택배사업'이 정착화 되기까지는 많은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에게 신기술을 이용한 편리하고 획기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영 국가대표 출신 15세에 아시아 신기록…현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문체부 2차관 임명 최윤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된 최윤희(52)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아시아의 인어'로 불렸던 수영 국가대표 출신이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차관에 선임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국 사격의 전설' 박종길 문체부 2차관에 이어 두 번째다.

최윤희 신임 차관은 15세였던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여자 배영 100m와 200m, 개인혼영 200m에서 모두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해 3관왕을 차지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4년 뒤인 1986년 서울 대회에서도 배영 100m와 200m에서 역시 아시아 신기록으로 우승해 아시안게임에서만 금메달 5개를 땄다.

1986년 은퇴 후 모델과 TV 리포터 등으로 활동하다 1991년 가수 유현상 씨와 결혼한 뒤에는 육아 등에 전념했다.

2001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로 건너가 현지 수영센터에서 1년여 간 코치를 맡았던 그는 2002년 귀국해 그해 열린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기간 방송 해설자로 마이크 앞에 섰다. 지난해 7월에는 3년 임기의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최 대표이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차지한 최윤희. /연합뉴스

트럼프 탄핵안 美 하원 통과…대선 정국 요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제 상원의 탄핵심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을 노리며 재선고지에 안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탄핵몰이를 이어가며 정권 탈환을 시도하는 민주당간 '탄핵 대 반(反)탄핵'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며 '정치적 명운'을 건 일전이 예고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융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남평읍 풍림리)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땅 2238㎡ 전원주택 등 적합 7천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서구 마륵동 도로접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음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음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접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1억
• 농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접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원룸·나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6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6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